

# 불조심 雄辯大會受賞作品

다음의 글은 지난 11月 14日 本協會가 內務部후원으로 實施한 第2回 불조심雄辯大會 受賞者中 特賞者 1名과 最優秀者 2名の 原稿를 轉載한 것이다.

<編輯者 註>



## 불조심 3대질서 운동

구래국민학교 2학년 권혜영

정신질서! 행동질서! 환경질서! 굵직한 글씨의 현수막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또하나의 글자를 써놓곤 한답니다. 정신으로불조심! 행동으로 불조심! 환경으로 불조심! 불! 불! 저 불빛!

이 작은 가슴속에 소름끼치는 무섭던 일을 생각나게 하는 불!

작년 이른봄의 어느날.....양지바른 언니네집 뒤뜰에는 소꿉놀이가 한창이었어요. 언마가 된 그 언니는 행주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가 고구마를 깨끗하게 씻어놓고 "우리애기 진짜 고구마 찌줄께 응!" 하며 석유곤로에 불을 붙치는 순간 "평"하는 소리와 함께 부엌은 불바다가 되었고 울부짖던 언니는 불속에 갇혀 버리고 말았답니다. "언니야! 언니야! 지옥, 정말 생지옥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어야 할 언니는 병원에서 거의 1년이나 되어 퇴원을 했지만 흉칙하고 일그러진 얼굴이 나를 볼때마

다 눈물을 흘리곤 한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가슴속에 쌓이고 쌓인 몸서리 쳐지는 기억이 다시는 이 세상 어느 누구의 가슴에도 파고들지 못하도록 조심! 조심! 또 조심! 불조심 하자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불의 고마움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에 앞서 불의 무서움을 잠시라도 잊지말고 "자나깨나 불조심"을 생활화하는 국민이 되자고, 이 꼬마 연사 여러분의 가슴에 불조심의 제 1탄 "정신으로 불조심"을 힘차게 던집니다! 작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화재가 5천 3백여건.....어찌 놀라지 않을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2백여명의 귀한 생명을 숨겨정으로 만들어버린 대연각 화재, 대왕코너 화재, 이리역 화약폭발, 현대아파트 가스폭발 사건 등과같이 놀랄도록 크고 비참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달아 일어남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불의 필요함과 힘을 잘알아 잘 사는 국민의 삶의 밑거름으로 사용함에 앞서, 불의 올바른 사용과 꺼진불도 다시 보고 또 보아서, 화재란 낱말을 뿌리채 뽑아 저 출렁이는 한강물에 던져버리는 지와 여러분이 되어야 겠다고, 여러분의 힘찬 두팔에 불조심의 제 2탄 "행동으로 불조심"을 들리워 드립시다! 우리의 생활은 불과야 뗄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찬란한 전기불, 이 마이크, 오늘 아침 맛있는 밥과 따뜻한 찌개를 끓여준것도.....

그러나 여러분! 이 고마운 불, 생명의 불, 희망의 불이 무섭고 몸서리 쳐지는 악마로 변하지 않도록 살피고 또 살피야겠다고, 이 꼬마 연사의 가슴속에 뭉치고 쌓여있는 불조심의 제 3탄 "환경으로 불조심"을 삼천리 방방곡곡 울려 퍼지라고 힘차게 힘차게 외칩니다,